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11-335호)

마이다스플러스장기증권저축투자회사

2011년 08월

Fund Facts

투자 목적	현물 주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을 매도하여 얻는 옵션프리미엄을 축적하여 주가하락위험을 줄이면서 추가수익을 추구합니다.
운용개시일	2001-11-06
펀드 규모	21 억원
총보수	순자산평잔의 연 2.34%
환매수수료	없음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플러스장기증권투자회사	-11.78%	-13.07%	-5.85%	5.79%	226.21%
참고지표	-8.82%	-8.90%	-1.63%	7.14%	189.00%
초과수익률	-2.95%	-4.16%	-4.22%	-1.35%	37.21%

※참고지표: KOSPI변동률*75%+CD금리*25%

수익률 추이

(2001.11.05~2011.08.31)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8월 한 달간 펀드 수익률은 -11.78%였으며, 동기간 참고지표의 변동률은 -8.82%를 기록하였습니다. 참고지표대비 수익률이 부진했던 것은 전반적으로 주도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으나 거시경제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지수 급락과 더불어 방어주들의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는 수익률이 양호하였던 방어주인 통신, 유통, 섬유/의복 등 내수주 비중이 낮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운수장비, 전기전자, 화학 등 수출 대형주 비중이 높았습니다.

주식 시황 및 자산배분

지난 8월의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고조와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세계 경제에 노출되어 있는 업종 및 종목이 급락한 반면, 내수주 및 중소형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과 건설, 운수장비, 기계, 화학 등 소재 및 산업재 업종 대부분이 급락하였으며 지난번 금융위기와는 다르게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의존도가 낮아지고, 채권으로는 오히려 해외자금들이 몰리는 등 각종 신용지표와 환율 변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 통신, 음식료, 섬유, 유통, 운수창고, 보험, 서비스, 전기가스, 의약품 등 글로벌 거시경제의 영향력이 적은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습니다. 특히 경기에 둔감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업종 등은 국내기관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현재 주식편입비율은 8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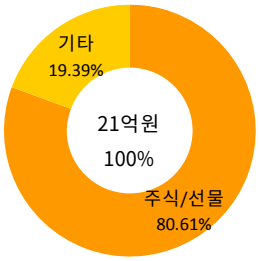
지난달은 고려아연, 다음, 코오롱인더, 카프로, 현대그린푸드, KT&G, SK C&C, 웅진코웨이, 삼성전자, 롯데쇼핑 등을 순매수하였으며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GS, S-Oil, LG화학, 한화케미칼, 한화, 금호석유, 현대중공업, 현대차, 기아차, 하이닉스, 이마트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중에는 현대그린푸드 엔씨소프트,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한화, GS,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주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8월 만기 콜옵션은 행사가격 292.5에 매도 하였습니다. 이후 8월 옵션 만기일 KOSPI200지수가 234.14로 종료됨에 따라 콜옵션 매도에 프리미엄 수입을 펀드 수익으로 실현하였습니다. 2011년 9월물 콜옵션은 행사가 252.5를 매도하였으며, 9월 만기일 주가 흐름에 따라서 손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11.08.31 기준]



상위보유종목

[2011.06.30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37.70%)

삼성전자	8.66
현대차	4.84
기아차	3.72
현대중공업	3.61
LG화학	3.54
하이닉스	3.49
GS	2.93
현대해상	2.33
금호석유	2.32
GS건설	2.27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